

법률 제정 후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크라툼)에 대한 특별강연회 및 정책회의 개막식

입력 2021.11.04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지하 B1 - 2 층 B1 구역 세미나실에서 솜삭 텡수틴 법무부 장관은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로 불리는 크라툼에 대해 법률 제정 후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 미래에 대한 특별강연회 및 정책회의 개최식을 주재하고 쿤나우트 탄트라쿨 하원사무차장이 경과보고한다. 솜삭 텡수틴 법무부 장관은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 (크라툼)가 1979년 마약법에 따라 벌칙 지위를 가진 식물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제 5종 의약품으로 규정했으며 태국전통의약에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엄격한 약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용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를 사용은 허용되거나 생활방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다.

태국 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맥락에 부합하기 위해 민간인의 방식으로 소비되는 일부 지역에서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식물성장 촉진하는 것과 함께 현재 2021년 벌칙 약사법(제 8호)에 의해 합법화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 관보에 공고되었고 2021년 8월 24일에 발효되었다.

농부들이 현재 광범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내각은 하원 심의에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 법안을 제출한다. 그 것은 국회에 법률안을 통과되고 법안 심의 특별위원회를 설립되어 저는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된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제 18차 하원회의 (제 1차 정기 국회)에서 하원 통과한다. 그리고 상원 특별 위원회에서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 법안을 심의 중이다.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의 중요성과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식물로 발전하기 위한 추진은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연구자, 교수, 법률가 등의 다양한 학술적·법률적 정보를 얻어서 사용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한방 약초 축진이 합법화되었다.

이 회의는 하원사무처와 과학기술연구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법률 시행 이후 미트라기나 스페시오사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연구 지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국가경제식물로 육성하는 방향 등을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번역: 썬자이 통쿤,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